

한반도 화교들의 한국전쟁

왕엔메이(王恩美)

머리말

지금까지 한국에서 한국전쟁을 논할 때 화교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배제되었다. 한국전쟁은 한국인에게 고통스러운, 그들만의 전쟁으로 기억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과연 한국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었을까? 한국전쟁의 고통과 아픔은 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것일까? 한국전쟁은 결코 한국인만의 전쟁이 아니다. 한반도에 사는 한국화교들도 이 전쟁에 휘말려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화교는 한국인과 같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공산주의자로 몰려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한국인들이 한국전쟁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묘사한다면, 한국화교들 또한 이 전쟁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가담하

면서 한국화교들도 한국측으로 참전하게 되었고, 중공군과 맞서 싸웠다. 한국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화교는 중공군과 같은 중국대륙 출신자들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한국민에게 국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한국화교에게도 국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6년 재발한 국공내전이 중국공산당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1949년 12월 국민당정부는 타이완(臺灣)으로 철수했다. 하지만 국민당에 대한 중공의 위협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국민당정권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민당정권은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통일의 기대 속에서 한국화교의 참전에도 개입하게 된다.

이 글은 한국화교가 체험한 한국전쟁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전쟁과 중국 분열의 관계를 설명하기로 한다. 한국 화교사회는 국민당정부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전쟁과 중국 분열에 관한 설명을 통해 국민당정부가 당시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한국화교의 참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화교의 전쟁경험에 관해서는 우선 전쟁 당시 한국 화교사회와 북한 화교사회에서 결성된 공산조직 및 반공조직의 설립과정, 그리고 화교사회가 겪은 공산주의자 혐의에 대한 공포를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한국화교가 실제 한국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쟁경험이 한국화교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전쟁 시기의 한국화교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중화민국 정부문서 및 초대 중화민국 주한국대사였던 사우위린(邵毓麟)의 회고록,¹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한국화교 뤼야통(羅亞通)의

인터뷰와 앙케트 조사자료²를 이용해 한국화교의 전쟁경험을 밝힐 것이다.

한국화교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전쟁경험은 한국에서 한국전쟁을 다룰 때 더욱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선사할 것이다. 한국화교의 한국전쟁 역사는 한국에서 마땅히 기억되어야 할 한국역사의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한국전쟁과 중국의 분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재개되었고, 그 양상도 점차 과격화되고 있었다. 미국은 처음에는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에 공산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당정부에 군사지원을 결정했다(1945. 9).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국공 양측이 무력충돌을 정지할 것과 중국의 평화통일을 호소하는 대통령성명을 발표했다(1945. 12). 미국은 그전까지 무조건적으로 국민당을 지지했던 것과 달리, 국공내전에서 미국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공산당과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당정부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내세웠다.³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9년 1월에 베이핑(北平: 지금의 북경北京), 4월에 당시의 수도 난징(南京), 5월에 상하이(上海), 8월에 푸젠성(福建省)의 푸저우(福州), 10월에는 하모이섬(廈門島)이 공산당에 함락되면서 국민당의 패전이 확실시되었다. 국민당정부는 난징 함락 이후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청두(成都)를 전전하다 12월 7일에 중앙정부를 타이베이(臺北)로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8일에는 총독부와 행정원行政院⁴ 관료가 타이베이에 도착, 9일부터 행정원 업무를 개시했다. 10일에는 장제스(蔣介石)도 타이베이에 도착했

다.⁵ 한편 공산당은 같은 해 10월 1일 중국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타이완에는 국민당정부(중화민국), 중국대륙에는 공산당정부(중화인민공화국)라는 두 개의 정권이 ‘중국’에 존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에 의한 ‘타이완 해방’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다. 중국대륙에서 공산당 승리가 확실해짐에 따라 미국측의 ‘중국 상실’ 또한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1949년 8월 5일 국민당과의 관계를 끊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백서’⁶를 발표하고 중국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미국은 이 백서에서 국민당의 패배는 국민당 내부의 심각한 부패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 때문에 국민당 병사의 전투의욕 상실과 민중지지 상실을 불러왔다고 전하며 국민당의 독재·부패·무능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체의 군사와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⁷ 그 후 1950년 1월 5일 ‘트루먼 선언’을 발표해 타이완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1950년 1월 12일 애치슨(Dean G. Acheson)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 미국의 서태평양방위선(알류산 열도, 일본 열도, 오키나와, 필리핀)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측의 ‘타이완 해방’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⁸ 국민당정부는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민당정부의 운명을 구해준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타이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고, 27일 트루먼 대통령은 타이완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공산군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타이완 해협에 제7함대를 출동시켰다. 그와 동시에 중국대륙에 대한 공·해군 공격정지를 국민당정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타이완 해협은 ‘중립화’되었고, 그것은 공산당에 의한 ‘타이완 해방’도, 국민당에 의한 ‘중국통일’도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국공내전은 그 상태로 ‘봉인’되어버렸다.⁹

그 뒤 미국은 국민당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갔고, 유엔에서 중국대표권을 지지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민당정부에 대한 원조도 재개했다. 위협했던 국민당정부의 국제적 지위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지지하에 안정되어갔다. 1951년 2월 국민당정부는 미국과 정식으로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일본과 국민당정부의 ‘평화조약’ 체결을 성사시켰으며, 1954년에는 국민당정부와 중미상호방위조약을 조인한다. 이로 인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관계는 아시아 냉전체제 속으로 말려들게 되었고, 내전의 범위를 벗어나 냉전체제의 국제적 맥락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분열은 확립되었다.

2. 화교사회의 공산·반공조직 설립과 공산 혐의의 공포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한국전쟁 경험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민족’ 분단현상은 남북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화교들 또한 같은 분단을 경험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면서 화교사회도 분단되어 남한은 국민당정부를 중심으로, 북한은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통합되어갔다.¹⁰ 남북한 정부가 각기 수립되면서 화교사회 또한 왕래가 완전히 두절되어 별개의 화교사회로 발전해갔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전쟁의 함락과 수복과정을 통해 남한 화교사회에서는 공산조직이 결성되고, 북한 화교사회에서는 반공조직이 설립되었다.

이로 인해 남한의 화교는 공산 혐의를 받는 공포를 체험하게 된다.

남한 화교사회: 화교공산조직의 설립

한국에서 화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국민당정부의 최고 기관은 중화민국 주한국대사관(이하 ‘중화민국대사관’)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화민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와 행동을 같이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¹¹ 그것은 한국 정부가 이동하면 중화민국대사관도 같은 곳으로 이전한다는 뜻이었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하면서 한국 정부도 6월 27일에 대전으로, 7월 8일에 대구로, 8월 18일에는 부산으로 이전한다.¹² 이에 따라 중화민국대사관도 한국 정부와 같이 이전을 거듭한다.¹³

6월 27일 중화민국대사관은 서울을 떠나기 전에 서울과 인천 화교들에게 부산으로 피난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많은 화교들은 재산과 사업을 버려둘 수 없어 잔류하는 것을 선택했다.¹⁴ 그 후 서울은 6월 28일에서 9월 27일까지, 인천은 7월 15일부터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된 9월 15일까지 북한군에 점령당했다. 중화민국대사관의 조사보고서인 「점령기간 중 서울과 인천의 중국인 공산주의자 공작원(agent)과 협조자 활동에 관한 정보」(이하 「공작원과 협조자 활동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에 점령당한 서울과 인천에서는 화교공산조직이 결성되었다.¹⁵

우선 서울에 조직된 공산조직을 살펴보자. 중화민국대사관이 서울을 떠나자 화교들은 대사관의 구두지시에 따라 대사관 재산과 화교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설립했다.¹⁶ 그러나 이 위원회는 북한군의 서울 점령과 동시에 자우링더(趙令德)¹⁷라는 인물에게 접수되어 7월 16일에 ‘서울 화교연합회漢城華僑聯合會’로 재편성되었다. 자우링더는 당시 평양 화교조직이었던 ‘화교연합총회華僑聯合總會’의 회장으로서 평양에서 파견된 화교공산조

직의 최고 책임자였다. 서울화교연합회는 하부조직으로 일반업무, 조직편성, 사상교육·선전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했다.¹⁸ 임시위원회의 구성원 전원도 서울화교연합회 명단에 올랐으나 실권은 평양에서 파견된 자우렁더 조직이 행사하고 있었다.

8월 5일 서울화교연합회의 운영이 궤도에 오르자 소규모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식적인 조직으로 재편했다. 그와 동시에 평양에서 파견된 췌이뎬 후양(崔殿芳)이 새로운 서울화교연합회의 책임자가 되었다. 임시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권력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나 명단에서는 제외되지 않았다.¹⁹ 그리고 8월 초에 교화 강습을 담당하는 왕신이(王辛逸)²⁰가 평양에서 파견되어 사상교육·선전도 시작되었다.²¹ 「공작원과 협조자 활동 정보」에 따르면 대다수의 화교들은, 참가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위협 속에 어쩔 수 없이 참가했다고 한다.

평양에서 파견된 화교 간부들은 서울 출신 화교를 기용해 하부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협력한 화교의 신상은 파악되지 않는다. 협력자인 서울 출신 화교가 공산조직의 지하조직원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회주의자였을 것으로 중화민국대사관은 판단했다. 그것은 그들이 한국 화교사회에서 그 어떠한 중요한 지위도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조직된 화교공산조직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인천의 화교공산조직은 인천 출신 화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천이 함락된 7월 15일 인천화교 지도자층은 화교들의 신분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과 비슷한 ‘임시위원회’를 설치했다.

인천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공산주의자 혐의로 반년 이상 투옥되었던 인천 출신의 화교 청완리(程萬里)가 석방됐다. 출옥한 청완리는 ‘인천화

교구국회(仁川華僑救國會)’를 결성하고,²² 임시위원회를 해산시키려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러자 그는 화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임시위원회와 인천화교구국회 중 한 쪽을 선택할 것을 강요했다. 대부분의 인천화교들이 임시위원회를 선택하자 청완리는 심沈이라는 자의 지원을 받아 내무서가 직접 관리하는 ‘화교해방연맹(華僑解放聯盟)’을 발족했다. 형식상으로는 임시위원회 회장이 책임자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청완리의 손에 있었다.²³

중화민국대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청완리가 조직한 화교공산조직은 독단적인 행동에 의한 것으로 평양에서 파견된 화교조직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7월 22일 자우렁더의 인천 방문을 계기로 화교해방연맹은 해산되었고 ‘인천화교연합회(仁川華僑聯合會)’가 새롭게 결성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혐의로 투옥되었던 위수장(于樹章)과 위수산(于樹彬)이 새로운 책임자와 부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임시위원회의 회장도 공동책임자로 강제등록되었다고 한다.

인천 화교공산조직이 인천 출신의 화교 위주로 형성된 이유는 평양에서 파견된 화교 인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은 서울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므로 인천까지 파견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화민국대사관의 판단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황이 역전되자 9월 16일 췌이뎬후양, 왕신이 등 평양에서 파견된 화교는 서울을 떠나 북으로 탈출했다. 그때 하부조직에 가담했던 서울화교들은 데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공산조직에 협력했던 비교적 중요한 화교들은 췌이뎬후양 일행의 탈출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의 힘으로 북으로 탈출했다. 인천에서도 9월 16일에 청완리가, 9월 19일에 위수장 일행이 북으로 탈출했다고 중화민국대사관은 판단했다.

북한 화교사회: 화교반공조직의 설립

북한군에 점령당한 서울이나 인천과 마찬가지로, 연합군에 점령된 평양에서는 화교반공조직이 결성되었다. 10월 20일 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북한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중화민국대사관 관원이 평양에 파견되었다.²⁴ 그가 이틀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작성한 시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전, 약 4만~4만 5,000명의 화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고, 평양에는 약 4,000명이 살고 있었다.²⁵ 중화민국대사관 관원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화교연합총회의 자우링더 등 지도자층은 북한 정부와 같이 북으로 이동하고 약 3,500명의 화교가 남아 있었다. 또, 그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6월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사관 관원이 파견되었지만 현지 화교와의 접촉은 없었고, 화교에 관한 모든 업무는 화교연합총회가 맡아 처리했다.²⁶

평양이 연합군에 점령당하자, 그곳에 ‘반공자치회’가 결성되었다. 위명하이(于定海)라는 인물이 회장을 맡았는데, 그는 평양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고, 식민지시기에는 ‘중화상회’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위명하이이는 1946년 3월에 북역해서 1950년 초에 석방되었다. 부회장은 송쉐공(宋學孔)과 마루젠(馬如珍)이라는 인물이 담당했다.²⁷ 중화민국대사관은 반공자치회의 위명하이와 송쉐공에게 화교 대표의 자격을 부여해 연합군과 한국군에게 소개하고 화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끔 했다. 반공자치회는 화교와 중국과의 무역기관인 ‘리민공사(利民公司)’ 및 ‘민주화교일보(民主華僑日報)’ 등과 같은 화교기관도 접수해 화교사회를 통솔하고자 했다. 평양 부근의 몇몇 지역에서도 반공자치회와 비슷한 조직이 발족되었다.

그러나 반공자치회는 서울과 인천에서 형성된 화교연합회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매우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의 경우 인천 출신의 화교가 총책임자를 맡았지만, 화교연합회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화교연합회 조직에

서 파견되어 결성한 조직이었다. 하지만 반공자치회는 현지 화교가 자발적으로 발족한 것으로, 중화민국대사관이나 한국의 화교조직이 관여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반공자치회는 돌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설립된 공산조직의 조직력과 화교사회에 대한 통제력은 북한에서 설립된 반공조직에 비해 상당히 강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공자치회의 결성 배경에는 반공사상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높지만 회장과 부회장의 투옥경험으로 미루어 이념을 떠나 북한 정권에 불만을 품은 자, 또는 기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결성했을 가능성도 높다.

공산주의자 혐의의 공포

연합군의 서울과 인천 탈환 후 북한군 점령시기의 공산주의자 협력자를 대상으로 ‘부역자’ 검거가 시작되었다. 당시 공산조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부역자’ 혐의를 받는 20명 정도의 한국화교가 체포되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로 화교 지도자층이 공산조직에 관여했기 때문에 체포된 자들도 ‘한성중화상회(漢城中華商會)’ 회장 리형련(李恒連),²⁸ ‘한성자치구(漢城自治區)’ 구장 장따우춘(張道春), ‘무역공회(貿易公會)’ 회장 스환장(史煥章) 등 화교 지도자층이었다.²⁹

중화민국대사관은 체포된 화교들의 석방을 위해 자체 조사한 「공작원과 협조자 활동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³⁰ 화교사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공산조직에 등록하게 된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강요당한 것에 불과하며, 화교 지도자들은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보장했다. 또한 중화민국대사관은 소수의 공산조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화교에 대해서는 그들의 일부가 공산당 공작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화교사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도 차지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일부는 기

회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화민국대사관은 이러한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화교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결국 중화민국대사관의 교섭으로 거의 모든 화교가 석방되었다.³¹

체포된 한국화교들은 비록 중화민국대사관의 교섭으로 석방되었지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중화민국대사관 초대 대사였던 샤우위린의 회고록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부역자 혐의로 체포된 화교를 군사재판으로 처결할 예정이었다고 한다.³² 한국화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산주의자 혐의가 안겨주는 공포를 체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공산주의자라는 구실로 납치되어 화교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중화민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1950년 10월 14일 서울에서 의사를 하고 있던 화교 쩌오취링(鄒居令, 67세)이 ‘대한민국사상통일협회大韓民國思想統一協會’를 자칭하는 단체에 끌려갔다.³³ 아들인 쩌오형위(鄒恒裕)는 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사상통일협회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감금되어 버리고 말았다. 사건을 전해 들은 중화민국대사관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사상통일협회가 ‘한국육군정부국공작과’의 부속정보기관으로 추정되었는데, 조사결과 한국 군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중화민국대사관은 한국의 ‘군경검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 10월 25일 중상을 입은 쩌오취링을 구출했지만 아들인 쩌오형위는 고문 끝에 사망한 채로 발견했다.³⁴

3. 화교들의 한국전쟁 참여

한국화교의 한국전쟁에 대한 경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한국

화교의 일부는 한국전쟁에도 참여했다. 한국화교의 참전형식으로는 심리전 참전, 전투부대 참전, 정보부대 참전³⁵으로 나눌 수 있다.

심리전 참전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공의 ‘타이완 해방’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국민당정부는 한국전쟁에 참여해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국공내전의 패배를 만회하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한국전쟁 발발 닷새 뒤인 6월 30일 국민당정부는 “육군 3개 사단과 운수기 20대를 한국에 지원한다”고 한국에 제안했다.³⁶ 그러나 미국은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구실이 될 것을 우려해 그 제안을 거부했고,³⁷ 한국은 미국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이 방침이었기 때문에 국민당정부의 파병구상은 좌절될 수 밖에 없었다.³⁸

샤우위린의 회고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일 한국전쟁이 미소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면 반드시 남북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압록강을 건너 동북에 진출해 중국대륙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³⁹라는 생각이 국민당정부에 있었다. 샤우위린이 국민당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산군 점령지역에 대한 수복을 국민당이 중국 동북으로 침투하는 발판 및 중국대륙 수복의 실험준비지구로 삼을 수 있다고 전한다.⁴⁰

샤우위린은 한국전쟁에 한국화교가 동원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어떻게 화교학교의 교원과 학생 그리고 화교를 우리 부대에 협력시켜 남한에서 북한까지, 북한에서 우리 동북으로 진출해 대륙 땅을 되찾을 것인가…….”⁴¹ 이런 샤우위린의 구상은 중공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 국민당정부의 파병구상은 불발로 끝났지만 한국화교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간접적인 참전을 하게 된 셈이다.

중공군이 참전해 전쟁의 주력이 되기 시작하자, 미국은 중공군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 샤우위린의 회고록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음 심리전의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은 1951년 1월 30일이다. 그 후 2월부터 중화민국대사관의 협조하에 중공군에 대한 작전이 세워졌다. 초기 단계 심리전의 구체적 내용은 비행기나 차로 선전문을 뿌리고 확장기로 중공군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것이었다.⁴² 국민당정부는 이러한 심리전의 선전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았다. 중공군에는 전 국민당 병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인민군의 감시가 심해 집단으로 투항할 수는 없었지만 인민군의 눈을 피해 개별적으로 투항하는 자가 속출했다고 한다.⁴³ 이러한 초기 단계의 심리전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화교학교의 교원과 학생이었다.⁴⁴ 그리고 중공군 포로의 통역으로도 한국화교가 동원되었다.⁴⁵ 그들은 짧은 기간의 훈련을 거쳐 심리전에 투입되었다.⁴⁶

하지만 한국화교가 1951년 6월 이후에도 계속 심리전에 참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샤우위린의 회고록에는 ‘초기 단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1951년 2월 미국은 심리전 전개를 위해 홍콩에서 중국인을 모집할 것을 구상하고 있었고, 1951년 6월에는 국민당정부도 심리전 요원 50명을 타이완에서 파견할 예정이었다. 1951년 9월 샤우위린이 대사직을 사퇴하고 귀국했는데, 그 시점에 심리전에 참가한 중화민국 국적자는 10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⁴⁷ 대부분은 타이완에서 파견된 자들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공 포로의 통역에는 한국화교가 계속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투부대로 참전

한국전쟁에 참여한 전투부대는 주로 북한에서 내려온 화교들로 구성되었

다. 1949년 4월 20일 조선인 520명, 화교 50명 총 570명이 참여한 ‘한중반공애국청년단(韓中反共愛國青年團)’이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단장은 화교 출신인 웨이쉬팡(魏緒芳)이, 부단장은 조선인 김명국(金明國)과 화교인 장웨이린(姜惠霖)이 맡았다.⁴⁸

한중반공애국청년단은 결성 후 북한군에 대한 게릴라전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게릴라전을 전개하며 활동하고 있었다.⁴⁹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는 한국인 800명, 화교 200명으로 단원 수가 증가했다.⁵⁰ 1950년 10월 20일 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웨이쉬팡은 한국 육군 제1사단을 방문해 한국군 작전에 참여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평양 지리와 사정에 밝다는 이유로 참여를 허가받았다고 한다. 웨이쉬팡은 한국 단원을 청년단과 치안부대로 재편해 평양의 치안을 유지하게 하고, 화교 단원을 ‘평양화교반공애국보위단(平壤華僑反共愛國保衛團)’으로 재편했다. 그 후 평양화교반공애국보위단은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했고,⁵¹ 12월 5일 연합군이 평양에서 후퇴할 때 단원 30여 명도 한국으로 이동했다.⁵² 웨이쉬팡은 한국에 도착한 30명의 화교 단원을 ‘중국수색대(中國搜索隊)’⁵³로 재편했는데, 중국수색대에 대해 미군이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계급과 군번이 부여되지 않았다. 한국에 도착한 후 잠시 동안 중국수색대는 중공군 정찰임무를 수행하며 지냈다. 중국수색대가 한국으로 남하한 후 한국 현지의 화교도 이 수색대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⁵⁴

그 후 중국수색대는 중공군과의 전투에도 참여했다. 1951년 초 중국수색대는, 정보참모였던 김안일(金安一) 중령이 대령으로 승진해 제1사단 제15연대장으로 발령이 나자 김안일을 따라 소속부대가 전환되었다. 명칭도 ‘15연대 중국인 특별수색대’(이하 ‘특별수색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얼마 후 1951

년 2월 2일 '특별수색대'는 과천전투에 투입되어 중공군과 격전을 벌인다. 연합군은 서울 탈환을 위해 반격을 시작했는데, 과천 지역에 도착하자 관악산에 중공군이 잠복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국수색대 대원을 중공군 군복으로 갈아입혀 참전하게 했다. 그들은 격전 끝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적군이 중화인민위원회의 우수기를 수여받은 정예부대였던 탓에 한국군 측의 피해가 막심했으며, 특별수색대의 부대장인 장웨이린이 사망하고 대원 여럿도 중상을 입었다.⁵⁵

같은 해 4월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가 개시되었고, 4월 28일 특별수색대는 15연대의 명령에 따라 녹번리(지금의 녹번동)전투에 투입되었다. 그들의 주 임무는 포격목표를 알리는 깃발을 적진에 꽂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임무 수행 중 중공군과 전투가 벌어져 대장인 웨이쉬팡은 가슴과 다리 등에 총상을 입고 대원 다섯 명도 부상을 입었다. 대장 웨이쉬팡의 부상으로 특별수색대의 활동은 중지되었고 그 뒤 한국전쟁에서도 대규모의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수색대가 한국군의 전투에 참여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⁵⁶

한국전쟁이 끝난 후 웨이쉬팡을 포함한 중국수색대(특별수색대)의 남은 대원들은 한국에 정주하며 한국화교의 일원이 되었다. 과천전투에서 사망한 장웨이린은 평양 출신으로, 유골을 인수할 가족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1963년 김안일의 건의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⁵⁷

정보부대로 참전

앞서 살펴 본 중국수색대는 자발적인 성격이 강하며, 배후에 국민당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하지만 중공군의 정보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Seoul Chinese부대'(이하 'S. C.부대')는 국민당정부가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1951년 초 국민당 해외공작회(海外工作會)는 중국대륙 시기에 직업군인이었던 왕쓰요(王世有)를 책임자로, 만주군관학교(1939년 현재의 장춘에 설립) 출신인 류귀화(劉國華)를 부책임자로 한국에 파견했다.⁵⁸ 한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육군정보부에 화교정보부대의 설립을 제안했다.⁵⁹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한국 육군정보부의 박경원(朴璟遠)과 'S. C.부대' 설립을 목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1951년 3월 S. C.부대가 부산에서 정식으로 설립되었다.⁶⁰ 한국군이 이들에게 무기, 탄환, 차량, 군복, 식사를 제공하고 국민당정부는 공작비와 월급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은 한국화교의 모금으로 충당했다. 국민당정부측의 대표는 왕쓰요였고, 한국측의 대표는 박경원이었다. 대장은 중국인 뤼야통(羅亞通)이, 부대장은 한국인 이백건(李百健)이, 지도원에는 류귀화가 임명되었다.⁶¹

뤼야통은 1949년 2월 중국에서 육군 군관학교 포병과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 중공군에 붙잡혀 1951년 6월 포병과 교원이 될 것을 강요당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공군으로 참전했다. 중공군이 후퇴할 때 그들 눈을 피해 38도선을 넘어 한국으로 피신했다. 한국에 와서 잠깐 동안 중화민국 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S. C.부대가 설립되자 군관학교를 졸업한 경력을 인정받아 S. C.부대의 대장으로 임명되었고, 당시에는 뤼잉한(羅英漢)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⁶²

S. C.부대에 참가한 한국화교는 약 500명으로, 전선부대로서 실전에 참여한 화교는 약 200명, 후방에서 활동을 지원한 화교는 약 300명이었다.⁶³ 서울시 자동과 경기도 파주 월용면에서 약 2개월 간 정보수집과 전투훈련을 받고,⁶⁴ 12명을 한 조로 한국 육군정보부 부대에 배치되었다.⁶⁵ S. C.부대는 한국 육군정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주로 한국측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한국 육군정보부가 왕쓰요에게 임무를 전달하면 왕쓰요가 필요한 장

비와 인원을 배치했다.⁶⁶

S. C.부대의 주된 임무는 정보수집이었다. 예를 들면, 중공군을 생포해 정보를 캐내는 일이나, 중공군이 군복을 바꿨을 경우 그 군복을 입수하는 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⁶⁷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S. C.부대는 당시로서는 이상적인 정보부대였을 것이다. 북한군에게 발각되었을 때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중공군에게 발각되었을 때는 중국어를 구사해 아군처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군에게 발각되었을 경우에도 임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⁶⁸

S. C.부대는 유격전을 목적으로 한 임무를 명령받을 때도 있었다. 뤼야통에 따르면 1953년 7월 15일 한국 육군정보부의 명령을 받고 유격전을 목적으로 30명이 북한에 투입되었다. 그중 15명은 백두산에 잠복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⁶⁹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S. C.부대는 해산되었다. 그러나 부대원의 일부는 정전협정 뒤에도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⁷⁰ S. C.부대로 참전해 희생된 화교는 100명을 넘는다고 한다.

또, 뤼야통에 따르면 S. C.부대를 결성한 국민당정부의 주된 목적은 한국군의 힘을 빌려 중공 후방으로 침투해 압록강을 넘어 중국 동북에 정보망과 유격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고 한다.⁷¹ 국민당정부는 한국전쟁을 이용해 중국에 정보부대 또는 유격부대를 침투시킬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샤우위린은 국민당정부에 보고한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예전과 같은 주동 파병 제안은 제시하지 말고 미국측의 제의가 있고 동북으로 진공할 계획이 있을 때 우리측에서도 한편으로는 소수의 정예부대를 한국에 투입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공군의 지원 및 장비를 요청해 연안지역으로 진공함으로써 병력을 확대해 유격전을 강화한다.”⁷² 이러한 샤

우위린의 구상을 분석해보면 S. C.부대를 그 선봉으로 삼고자 했던 것 같다. 아니면 S. C.부대를 이용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구상은 실패로 끝났다. 뤼야통에 따르면 중국 동북 침투에 성공한 예는 없다고 한다.⁷³

그렇다면 한국화교는 왜 S. C.부대에 참가했던 것일까? 뤼야통은 중공군에 대한 복수심과 중화민국을 위해 참전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중국대륙까지 확대되어 연합군과 중화민국이 함께 싸우게 되면 중국대륙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⁷⁴ 국민당정부의 파병 제안이 거부당했어도 장제스는 한국전쟁을 이용해 중국대륙을 반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계속 갖고 있었다.⁷⁵ 이러한 국민당정부의 한국전쟁 참전 부름에 일부의 한국화교는 중화민국을 위해, 또 일부의 한국화교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것이다.

4. 한국전쟁이 화교사회에 남긴 것들

한국전쟁은 화교들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고, 한국전쟁의 경험은 그 후 한국 화교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반공 입장의 확립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초기에 서울과 인천에 공산조직이 결성되어 일부 현지 화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연합군에 점령된 평양에서도 현지 화교를 중심으로 반공조직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예를 보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한국 화교사회와 북한 화교사회는 반공과 공

산, 친국민당과 친중공세력이 혼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48년 남한에서 반공정부인 한국 정부와 공산정부인 북한 정부 수립 후, 한국측의 대부분 화교는 반공과 친국민당의 입장에 섰을 것이고, 북한측의 대부분 화교는 공산과 친중공의 입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쪽 화교사회 모두 반공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소수의 사람이 존재했다. 서울, 인천과 평양에서 조직된 반공조직과 공산조직에 참여한 현지 화교의 행동을 기회주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주의자가 존재했다는 것이 바로 당시에 화교들의 반공이나 공산 입장이 확고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한국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 공산과 친중공을 지향하는 화교, 그리고 북한에서 반공과 친국민당을 지향하는 화교는 점차 소멸되어갔다. 공산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화교들이 북으로 이동한 것과 중국수색대가 남으로 이동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공산과 친중공을 지향하는 화교는 전쟁과 더불어 북한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반공과 친국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화교는 연합군과 더불어 한국으로 이동했다고 본다.

한국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반공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한국 화교는 공산조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부역자 용의자로 체포되어 고초를 겪어야 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 혐의로 납치돼 사망하는 사건마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공산주의자라는 구실을 핑계 삼아 화교로부터 금품을 탈취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사상통일협회가 쥐오취령의 석방 대가로 1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금전 탈취가 납치의 목적이고 공산주의자는 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화교가 납치당하고 탄압받을 수 있는 국가체제가 형성된 것도 부인



한국 정부가 중화민국대사관에 덩용성 체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감사장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샤우위린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로 체포된 경험을 했던 한국화교의 반공사상은 한층 강화되었다.⁷⁶ 한국전쟁은 북한 화교사회의 반공분자와 한국 화교사회의 공산분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후기에 이르면서 한국화교의 반공 입장은 더욱 확고해진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으로 “덩용성(丁永生) 체포사건”을 들 수 있다. 1953년 1월 18일 중국인 덩용성은 중국공산당 간첩 혐의로 한국 치안국정보수사과외사계治安局情報搜索課外事係에 검거되었다.⁷⁷ 1월 20일 덩용성은 문초를 받던 중 취조관을 구타하고 도주했다. 한국 내무부 치안국은 중화민국대사관에 덩용성 체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화민국대사관은 화교사회에 협조를 당부했고, 결국 2월 16일 한 화교의 밀고로 덩용성이 체포되었다.⁷⁸

한국 내무부 치안국은 덩용성 체포에 협조한 중화민국대사관에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감사장에 써 있는 것처럼 “대사관에서는 국내 거주 화교 전원에 적극 협력하도록 연일 독려하여 주신 결정(結晶)으로” 덩용성 체포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화민국대사관의 독려가 효과를 발휘하고 한국화교가 덩용성을 밀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화교의 반공 입장이 확고해 진 탓일 것이다. 내심은 어떻든지 표면상으로 반공에 동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가 한국에서 확립되었고, 한국화교도 그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화교도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자 혐의의 공포와 중공군과의 전투를 경험하면서 내심으로부터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반공주의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본다.

국민당정부와의 관계 강화와 국민의식의 자각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과 인천에서 공산조직이 결성된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국민당정부 세력이 화교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화교 지도자들이 공산조직을 지지하지 않고 중화민국대사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화교사회가 중화민국대사관과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 후 중화민국대사관이 화교 석방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고 화교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공산주의자 혐의로부터 구조해준 사실은 화교사회에서 한층 더 국민당정부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이 한국에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화교도 한국전쟁을 통해 중화민국의 국민의식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⁷⁹ 또한 한국민에게 한국전쟁이 나와 타자, 나와 적을 구별하는 경험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화교도 중화인민공화국을 타자로, 그리고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일제식민시기의 화교의 귀속의식은 고향인 ‘산둥성(山東省)’에 대한 감정을

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중화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은 강력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한국화교는 고향에 대한 감정보다 우선시 되는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전쟁에서 직간접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적으로 싸우는 경험을 하게 된 한국화교는 반공진영에 속하는 중화민국에 대한 귀속의식을 자각하게 되었고, 중화민국의 국민의식이 산둥성에 대한 귀속의식의 상위에 존재하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은 한국화교의 귀속의식이 정치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해방 후 중화민국의 화교사회 통합이 한국화교의 국민의식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한국화교의 국가에 대한 의식은 해방 이후 분단과 더불어 남한의 화교사회는 신속히 중화민국 중심으로 통합되어갔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중화민국에 대한 국민의식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타이완 해방’이 실현되면 중화민국은 세상에서 사라져 한국화교의 국민의식도 변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의 ‘타이완 해방’은 실현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분열은 고착화되었다. 한국전쟁 참전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에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동아시아 냉전구조에도 영향력을 확대했다. 미국의 아시아방위체제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의식하며 구축되었고, 그 세력을 봉쇄하기 위해 중화민국은 이용가치를 인정받아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중국대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지지하에 국제적으로 ‘정통성’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중국’의 분열이 고착화하자 한국화교의 국민의식도 그 어느 한쪽을 선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국에서 화교가 선택가능한 것은 중화민국밖에 없었으며, 다른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화교 스스로도 중화민국을 선택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반공주의는 한국에서 정당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한국에서 공산당은 적이고 소멸시켜야 할 '악'이었다. 한국전쟁의 경험은 한국 화교에게도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을 경험한 한국화교의 내부에도 '반공=정당행위=안전', '공산=반역행위=공포'라는 도식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한국화교의 이 도식은 '반공=정당행위=안전=중화민국', '공산=반역행위=공포=중화인민공화국'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한국과 중화민국이라는 반공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화교는 반공주의가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소수자인 한국화교는 자신의 생명과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하게 반공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반공의식은 한국화교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맺음말

한국화교의 한국전쟁 경험, 특히 그 참전경험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한국 정부와 국민당정부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화교의 참전을 외면시하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화교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군번과 계급이 부여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중군기록이 없는 유령과도 같은 존재였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한국전쟁에 참가한 한국화교는 한국 정



한국전쟁에 참여한 S.C.부대원이 1971년 12월 4일 박정희 정부로부터 중군기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마지막 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이가 필자가 인터뷰한 뤼야통이다.

부와 국민당정부에게는 보이지 않는 정말로 유령이 된 셈이다. 한국 정부도, 국민당정부도 심지어 한국 사회조차 참전 화교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유령 취급을 해왔다.

전쟁에서 정보수집은 전투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화교를 이용해 중공군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 중국수색대는 유격부대였지만 한국군에 소속되면서 한국군의 요청하에 중공군에 대한 정찰과 정보수집 임무도 수행했다. S. C.부대의 설립목적도 정보수집에 있었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중공군의 정보를 수집하려 했을 것이고, 그 임무에 한국화교는 적합한 존재였다. 국민당정부는 한국 정부와 달리 한국화교를 한국전쟁에 투입해 중군대륙으로 진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 이러한 양측의 이익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S. C.부



왼쪽: 1973년 9월 22일 S.C.부대원들이 박정희 정부로부터 보국포장을 수여받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오른쪽: S.C.부대의 대장이었던 뤼야통이 수여받은 보국포장증

대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끝나자 한국화교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유명 취급을 당했다. 한국 정부도 국민당정부도 한국화교의 한국전쟁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화교의 한국전쟁 참전을 인정했다. 1971년 12월 한국 정부는 생존하는 S. C.부대원 47명에게 중군기장을 수여하고, 1973년 9월 보국포장을 수여했다.⁸⁰

하지만 한국화교에 대한 참전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고인이 된 뤼야통과 인터뷰했을 때 받은 인상이 지금도 필자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중군기장 수여를 계기로 참전 한국화교들은 '재한화교참전동지회'를 결성했다. 2005년 7월 필자가 뤼야통을 인터뷰할 때, 그는 재한화교참전동지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참전 화교를 위해 한국 정부에 참전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쓸쓸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털

어놓았다. 한국화교는 한국 국민이 아니어서 참전보상이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화교의 '조국'인 중화민국은 어떠한가? 국민당정부도 한국화교에게 그 어떠한 전후 참전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한국과 중화민국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잃은 이들은 계속 외면되어왔던 것이다.

한국화교의 이러한 외로운 참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국화교의 한국전쟁 경험은 한국역사의 일부분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한국역사의 일부로 기억되고 계승될 때, 진정한 한국화교의 참전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한국화교의 한국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한국화교의 전쟁경험은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㉞

왕엔메이(王思美)

현재 타이완국립사범대학 동아시아문화및발전학과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한국화교 연구이며, 최근 '한국과 타이완의 반공체제와 경험 비교연구', '한국의 차이나타운 형성과 소멸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표저서에는 『東アジア現代史のなかの韓国華僑—冷戦体制と「祖國」意識』(三元社, 2008)가 있고, 논문으로 『冷戦時期學校教育中の反共形象—以台灣與韓國兩地小學教科書為中心的分析』, 『思與言』(第四十八卷, 2010년 출간 예정)이 있다.

- 1 邵毓麟, 『使韓回憶錄』, 台北傳記文學出版社, 1980.
- 2 인터뷰 조사는 2005년 7월 26일 한성화교소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앙케트 조사는 퀴아통씨의 인터뷰 당일에 질문지를 건네고, 몇 일 후에 직접 만나 그가 쓴 내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퀴아통씨는 인터뷰 당시 79세였으나,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한국화교의 한국전쟁 참여에 관한 역사를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었고, 이 기록으로 한국화교 사회의 역사를 조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인터뷰 조사와 앙케트 조사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퀴아통씨를 대신해 그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 3 西川吉光, 『現代國際關係史 I-冷戰の起源と二極世界の形成』, 晃洋書房, 1998, 191~192쪽.
- 4 타이완의 행정원은 국가 최고의 행정기관이며, 행정원장은 한국의 총리와 흡사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 5 若林正丈, 『台灣-分裂國家と民主化』, 東京大學出版會, 1992, 66~67쪽.
- 6 1949년 8월 5일 미국은 '중구백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공공내전에서 국민당의 패배는 미국 정부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西川吉光, 『現代國際關係史 I-冷戰の起源と二極世界の形成』, 194쪽 참조.
- 7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미국은 20억 달러 이상을 국민당에 지원했지만, 자신이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西川吉光, 『現代國際關係史 I-冷戰の起源と二極世界の形成』, 194쪽 참조.
- 8 若林正丈, 『台灣-分裂國家と民主化』, 67~68쪽.
- 9 若林正丈, 『台灣-分裂國家と民主化』, 70~71쪽.
- 10 해방 초기의 남한 화교사회 상황에 관해서는 왕은미, 「미군정기의 한국화교사회: 미군정, 중화민국정부,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Vol. 7, No. 1, 2005, 참조.
- 11 邵毓麟, 『使韓回憶錄』, 156쪽.
- 12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I-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들녘, 1998, 160·163쪽.
- 13 한국 정부가 대전으로 이전하자 중화민국대사관도 같이 이전해 7월 6일부터 대전지방법원을 빌려 업무를 재개했다. 얼마 후 한국 정부가 대구로 옮기자 중화민국대사관도 7월 10일 대전을 떠나 14일 대구에 도착해 한국인 변호사의 자택을 빌려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다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8월 18일 중화민국대사관도 대구를 떠나 다음날 부산에 도착했다. 중화민국대사관은 부산에서 '봉래각蓬萊閣'이라는 한국화교가 경영하는 고급 중화요리집의 4층과 5층을 빌려 대사관으로 사용했다. 봉래각은 부산 시내에 있는 5층 건물로, 그전에는 병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가 비교적 청결했다고 한다.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가 봉래각을 징집하려 했기 때문에 봉래각 주인이 자발적으로 대사관에 이용을 권유했다고 한다(邵毓麟, 『使韓回憶錄』, 73·130·192쪽 참조). 봉래각은 해방 후 화교가 점유하고 있던 적산가옥으로 추정된다.

- 14 邵毓麟, 『使韓回憶錄』, 154쪽.
- 15 「(CONFIDENTIAL)MEMORANDUM: SUBJECT: Information on activities of Chinese Communist agents and collaborationists in Seoul-Inchon area during occupation」, 『韓國僑務雜項案第1冊(1948年 8月~1950年 12月)』,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1,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중화민국대사관은 공산조직의 결성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이하에서는 이 '비망록(MEMORANDUM)'에 의거하여 북한군에 점령당한 서울과 인천에서 조직된 공산조직 및 서울 탈환 후의 화교가 처한 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편의를 위해 인용 주석은 생략한다.
- 16 샤우위린(邵毓麟)의 회고록에 따르면, 중화민국대사관이 피난하기 직전에 그는 '중화민국대사관재산보관위원회中華民國駐韓大使館財產保管委員會'를 결성할 것을 화교 지도층에 명하고, 대사관의 재산보호와 화교업무 담당을 지시했다고 한다(邵毓麟, 『使韓回憶錄』, 158·213쪽 참조). 본문에 서술한 '임시위원회'는 '중화민국대사관재산보관위원회'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회의 회장은 리형론편(李恒連)이다.
- 17 당시 38세로 산둥성 출신이다. 북한 '정치협상회의政治協商會議'의 화교 대표이다.
- 18 이 세 위원회도 평양에서 파견한 화교가 책임을 맡았다.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는 원산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웨이몐후양(崔殿芳, 40세 산둥성 출신)이었다. 조직편성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책임자는 장지진(張基晉, 36세 산둥성 출신)으로, 평양 '화교연합총회'에서 사상교육·선전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상교육·선전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책임자는 조선인 이봉건(李奉建, 30세)으로, 중국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봉건은 중국어가 유창해 『민주화교일보民主華僑日報』라는 화교신문의 발행자였다고 한다.
- 19 외관상 공식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임시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명단에 등록됐다고 한다.
- 20 당시 28세로 신의주 화교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 21 상업종사자, 여성, 지식인 등 대중을 분류하여 사상교육·선전 강습이 실시되었다.
- 22 청완리(程萬里)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심沈이라는 한국인의 지지를 얻어 '인천화교구국회仁川華僑救國會'를 결성했다. 심沈은 출옥 후 폭력적인 수단으로 공산당 지역행정기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한다. 청완리는 당시 35세로, 인천 '신화서점新華書店'의 관리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 23 '임시위원회'의 책임자와 화교 지도자는 '화교해방연맹'의 책임자로서 이름을 등록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 24 邵毓麟, 『使韓回憶錄』, 216쪽.
- 25 「據報關於該館派許參事視察平壤結果要點並建議派員前駐北韓事電報復知理由」, 『韓國僑務雜項案第1冊(1948年 8月~1950年 12月)』, 007052쪽. 이하에서는 주로 이 자료를 근거로 고찰한다. 인용 주석은 편의상 생략한다.
- 26 1950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은 무관 1명과 대사관원 10명을 파견했는데, 그들이 외교업무를

- 담당하는 최초의 정부 관원이었다. 그 후 8월 12일 정식으로 니쯔량(倪志亮) 대사가 20명의 군인과 함께 평양에 파견되었는데, 현지 화교와는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화교업무는 '화교연합회'에서 주관했다고 한다.
- 27 송쉐공(宋學孔)은 2개월 정도 복역한 적이 있으며, 마루젠(馬如珍)은 '화교연합회'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로 보인다. 중화민국대사관은 화교연합회와 관계된 화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루젠을 '반공자치회'에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28 리형렌(李恒連)은 후에 타이완으로 건너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교교선감찰원감찰위원華僑僑選監察院監察委員을 역임한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214쪽.
- 29 중화민국대사관은 한국의 군과 경찰이 화교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화교의 약점과 공포를 이용해 화교부역자사건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韓國僑務雜項案第1冊(1948年 8月~1950年 12月)』(駐韓大使館代電 1950. 12. 8), 007049쪽 참조.
- 30 『韓國僑務雜項案第1冊(1948年 8月~1950年 12月)』(駐韓大使館代電 1950. 12. 8), 007049쪽.
- 31 그러나 위상하이(于星海)라는 화교는 중화민국대사관의 조사결과 공산주의 혐의자로 판단되어 석방되지 못했다. 『韓國僑務雜項案第1冊(1948年 8月~1950年 12月)』(駐韓大使館代電 1950. 12. 8), 007049쪽 참조.
- 32 邵毓麟, 『使韓回憶錄』, 221쪽.
- 33 「關於旅韓僑民鄰居令鄰恒裕被韓國非法團體□誣非法拘訊勒索一案, 電達查照·電復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第2冊(1950年 12月~1951年 9月)』,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2,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0008006쪽.(□은 판독 불가능)
- 34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사상통일협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주범인 이흥집李弘執은 사형, 공범자 4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35 정보부대에 관한 고찰은 당시 대장을 맡았던 뤼아통(羅亞通)씨의 인터뷰 조사와 앙케트 조사를 위주로 했다.
- 36 邵毓麟, 『使韓回憶錄』, 169쪽.
- 37 李奎泰, 「中共對韓政策之研究」, 台北: 政治大學博士論文, 1992, 89쪽.
- 38 邵毓麟, 『使韓回憶錄』, 177쪽.
- 39 邵毓麟, 『使韓回憶錄』, 151쪽.
- 40 「邵毓麟報告匪參加韓戰情報」(邵毓麟 발신, 발신일자: 1950. 11. 24) 중화민국정부 국방부문서, 總檔檔號: 00026072, 目次號: 01, 타이완 국방부사정편역실國防部史政編譯室 소장. 한국도 한국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11월 샤우위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측은 중국 동북의 폭동이 일어나 전투가 발생한 것을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징조 중 하나로 보고, 곧이어 이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41 邵毓麟, 『使韓回憶錄』, 170쪽.
- 42 邵毓麟, 『使韓回憶錄』, 249~250쪽; 「是降還是死? 聯軍對匪陣前喊話給匪軍留一條生路」,

- 『中央日報』, 1951. 3. 12.
- 43 「韓戰匪發動攻擊之企圖」(星核 聲明 또는 기관: 邵毓麟, 작성일: 1950. 3. 29); (邵毓麟 발신, 발신일자: 1950. 2. 18) 중화민국정부 국방부문서, 總檔檔號: 00026072, 目次號: 03. 타이완 국방부사정편역실國防部史政編譯室 소장.
- 44 邵毓麟, 『使韓回憶錄』, 250쪽.
- 45 邵毓麟, 『使韓回憶錄』, 253~255쪽.
- 46 샤우위린의 회고록에 기록된 한성화교소학교漢城華僑小學校 교장이었던 진귀량(陳國樑)의 통계에 따르면, 1951년 6월 5일까지 심리전에 참가한 한국화교는 미군 참가자 39명, 한국군 참가자 27명으로 모두 66명이다. 그중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7명, 실종자가 1명이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251쪽 참조.
- 47 邵毓麟, 『使韓回憶錄』, 250쪽. 그러나 심리전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파악할 수 없었다.
- 48 웨이취광(魏緒勛)은 신의주에서 태어나 국민당의 중국 동북 정보기관에 소속되어 중국공산당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 웨이취광은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하자 북한으로 돌아와 화교를 중심으로 한 반공단체를 결성했다. 김명국金明國도 북한에서 반공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가 웨이취광의 단체와 합병함으로써 '한중반공애국청년단'이 탄생했다. 장웨이린(姜惠霖)은 평양에서 음식집을 경영하고 있었다.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台北: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1983, 121~122쪽 참조.
- 49 부단장인 김명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평양 서부 내무서를 공격했을 때 전사했다. 그들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 50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23쪽.
- 51 중화민국 외교부문서에 따르면, 중화민국대사관은 한국전쟁에 참여해 사망·부상당한 화교에 관한 보상규정이 연합군측에 없는 것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외교부의 지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남한으로 이동하기 전의 화교 단원들이 수행한 임무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據報聯合國軍對旅韓華僑參戰傷亡之補助及撫卹並無規定, 電達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第3冊(1951年 9月~1952年 12月)』,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3,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000930쪽 참조.
- 52 웨이취광은 약 200명의 화교 단원 모두가 한국군과 같이 이동할 것을 희망했지만 운송차량의 부족으로 50명만 후퇴에 성공했다. 북으로 반격할 것을 예상해 그중 약 20명의 단원을 남하 도중에 배치했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한 단원은 30명 정도였다고 한다.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25쪽 참조.
- 53 '중국수색대'의 명칭에 관해 秦裕光은 '중국인수색대'라고 쓰고 있다. 한편 중화민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문서에는 '중국수색대'라고 쓰고 있다. 필자는 후자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글에서는 '중국수색대'로 쓴다. 「據報聯合國軍對旅韓華僑參戰傷亡之補助及撫卹並無規定, 電達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第3冊(1951年 9月~1952年 12月)』, 000930쪽 참조.

조.

- 54 『據報聯合國軍對旅韓華僑參戰傷亡之補助及撫卹並無規定, 電達查照由』에 '중국수색대'가 한국으로 이전한 후에 사망·부상자 명단에는 서울과 부산 출신의 화교도 포함되어 있다.
- 55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27~129쪽.
- 56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31~132쪽.
- 57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29쪽.
- 58 류귀화가 처음 한국에 온 때는 1949년 3월이다. 그 후 대사관의 소개로 대전화교소학교에서 교무주임을 담당하고 있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해 부산으로 피난가 거기서 타이완으로 돌아갔다. 국민당정부가 류귀화를 파견한 배경에는 박정희 등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한국인의 다수가 한국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맥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15~116쪽 참조.
- 59 뤄야통씨의 인터뷰 조사(2005. 7. 26).
- 60 뤄야통씨의 앙케트 조사(2005. 7. 회수). 'S. C.부대'의 설립과 관련해 뤄야통씨의 앙케트 조사내용과 秦裕光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S. C.부대의 대장이었던 뤄야통씨에 따르면 한국 육군정보부(당시는 4863부대, 또는 H.I.D)의 박경원 대령(上校)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秦裕光은 계약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고, 한국 육군정보부 국장 김일평金一平 장군과 H.I.D의 대장 박경원 대령에게 이야기하자, 그들도 정보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금세 승낙했다고 한다.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16쪽 참조.
- 61 뤄야통씨의 앙케트 조사(2005. 7. 회수).
- 62 뤄야통씨의 인터뷰 조사(2005. 7. 26).
- 63 뤄야통씨의 앙케트 조사(2005. 7. 회수). 이에 대해서도 뤄야통씨와 秦裕光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秦裕光은, 200명을 모집해 그중 70명이 무장공작원이었고, 나머지는 후방에서 S. C.부대의 활동을 지원했다고 한다.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16쪽 참조.
- 64 뤄야통씨의 앙케트 조사(2005. 7. 회수).
- 65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16쪽.
- 66 뤄야통씨의 인터뷰 조사(2005. 7. 26).
- 67 뤄야통씨의 인터뷰 조사(2005. 7. 26).
- 68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17쪽.
- 69 뤄야통씨의 인터뷰 조사(2005. 7. 26).
- 70 뤄야통씨의 인터뷰 조사(2005. 7. 26).
- 71 뤄야통씨의 앙케이트 조사(2005. 7. 회수).
- 72 「邵毓麟報告共匪參加韓戰情報」(邵毓麟 발신, 발신일자: 1950. 11. 26) 중화민국정부 국방부문서.
- 73 뤄야통씨의 인터뷰 조사(2005. 7. 26).

- 74 필자는 뤄야통씨에게 다른 한국화교들은 어떤 이유로 참전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뤄야통씨는 당시 한국화교들이 전쟁을 무척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S. C.부대 참가자를 모집하자 많은 화교들이 지원했다고 한다. 전쟁에 참가한다고 하자 많은 화교들이 참전하고 싶어했다고 한다. 한국화교는 북한군에 점령당했을 때 북한군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한국 정부를 위해 그리고 화교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쟁에 참가했다고 한다. 뤄야통씨의 인터뷰 조사(2005. 7. 26).
- 75 劉維開, 「蔣中正總統對韓戰及相關問題的看法與政策」, 『近代中國』, 137, 2000, 6. 96쪽.
- 76 "본 대사관은 석방된 화교를 엄중히 훈도하고 화교군중대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공산당의 폭정을 검토했다. 화교의 대공산당 인식은 날로 선명해졌고, 반공애국 감정도 그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2차 함락 때 각지의 화교는 자발적으로 본 대사관을 따라 남쪽으로 후퇴했다." 邵毓麟, 『使韓回憶錄』, 221쪽 참조.
- 77 한국 정부가 중화민국대사관에 보낸 사건보고서에 따르면 덩용성은 산둥성 출신으로 산둥성 옌타이(煙台)에서 비누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1945년 그는 옌타이에서 중공 산하조직에 가입했지만 국민당군의 침공으로 1947년 8월 한국으로 피난와 잠복하고 있었다. 그는 부산에서 잡화상, 밀가루 장사 등을 했으며, 체포 당시에는 부산 동래 온천장에서 한중식당이 라는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는 1952년 부산에 있는 연합군사사무소, 미군기지, 중화민국대사관 등 31곳의 중요 군사시설과 중요 기관의 위치 등 기밀정보를 중국공산당에 제공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關於丁永生匪嫌案續據駐韓大使館電告特電請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1951年 9月~1952年 12月)第3冊』,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3,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0009084쪽.
- 78 이 사건으로 50명 이상의 화교가 체포되었으나 대사관의 교섭으로 협력 혐의가 강한 용의자 3명, 범인 은닉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화교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關於丁永生匪嫌案續據駐韓大使館電告特電請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1951年 9月~1952年 12月)第3冊』, 0009077~0009083쪽.
- 79 한국전쟁은 한국과 북한의 국민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국민적 일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일체화·공동체적인 자각을 불러일으켜 휴전선 38도선 이남의 한국 국민의식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이 국민의식은 북한과 대립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박명림, 「한국전쟁과 한국정치 변화－국민통합, 헌법정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74쪽 참조.
- 80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韓國華僑史話』, 135쪽.

참고문헌

- 「是降還是死? 聯軍對匪陣前喊話給匪軍留一條生路」, 『中央日報』, 1951. 3. 12.
- 「(CONFIDENTIAL)MEMORANDUM: SUBJECT: Information on activities of Chinese Communist agents and collaborationists in Seoul - Inchon area during occupation」, 『韓國僑務雜項案第1冊(1948年 8月~1950年 12月)』,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1,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 「據報關於該館派許參事視察平壤結果要點並建議派員前駐北韓專電報復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第1冊(1948年 8月~1950年 12月)』,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1,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 『韓國僑務雜項案第1冊(1948年 8月~1950年 12月)』(駐韓大使館代電 1950. 12. 8),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 「關於旅韓僑民鄒居令鄒恒裕被韓國非法團體□誣非法拘訊勒索一案, 電達查照·電復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第2冊(1950年 12月~1951年 9月)』,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2,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은 판독 불가능)
- 「據報聯合國軍對旅韓華僑參戰傷亡之補助及撫卹並無規定, 電達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第3冊(1951年 9月~1952年 12月)』,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3,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 「關於丁永生匪嫌案續據駐韓大使館電告特電請查照由」, 『韓國僑務雜項案(1951年 9月~1952年 12月)第3冊』, 중화민국정부 외교부문서, 目錄號: 172-8, 案卷號: 1328-3, 타이완 국사관國史館 소장.
- 「邵毓麟報告共匪參加韓戰情報」(邵毓麟 발신, 발신일자: 1950. 11. 24), 중화민국정부 국방부문서, 總檔號: 00026072, 目次號: 01, 타이완 국방부사정편역실國防部史政編譯室 소장.
- 「韓戰匪發動攻擊之企圖」(呈核 성명 또는 기관: 邵毓麟, 작성일: 1950. 3. 29), (邵毓麟 발신, 발신일자: 1950. 2. 18), 중화민국정부 국방부문서, 總檔號: 00026072, 目次號: 03, 타이완 국방부사정편역실國防部史政編譯室 소장.
- 박명림, 『한국전쟁과 한국정치의 변화 - 국민통합, 헌법정치,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 왕은미, 『미군정기의 한국화교사회: 미군정, 중화민국정부,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Vol. 7, No. 1, 2005.
- 임영태, 『대한민국50년사 I - 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 들녘, 1998.
- 西川吉光, 『現代國際關係史 I - 冷戰の起源と二極世界の形成』, 晃洋書房, 1998.
- 若林正丈, 『台湾 - 分裂國家と民主化』, 東京大學出版會, 1992.
- 李奎泰, 『中共對韓政策之研究』, 台北: 政治大學博士論文, 1992.
- 邵毓麟, 『使韓回憶錄』, 台北: 傳記文學出版社, 1980.

- 秦裕光, 『旅韓六十年見聞錄 - 韓國華僑史話』, 台北: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1983.
- 劉維開, 『蔣中正總統對韓戰及相關問題的看法與政策』, 『近代中國』, 137, 2000. 6.